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09.03.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드라기 보고서 발표 후 1년간의 진전 사항(8.28)

- EU, 일부 연구혁신 권고는 이행하였으나 상당수 과제는 여전히 미흡
- 1년이 지난 지금, EU는 여전히 워싱턴과 베이징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이며,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불평등한 무역 협정 (수천억 유로 규모 화석연료 및 400억 달러 규모 AI칩 수입 약속)은 이러한 구조적 종속성을 보여줌
- 드라기는 “보고서의 교훈은 1년 전보다 지금 더 절박하다”며, “경제·사회적 생존을 원하는 대륙이 혁신 기술에서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”이라고 재차 강조.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·반과학 정책으로 미국이 유럽 스타트업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 점을 ‘희망적 요소’로 꼽으며 “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”고 언급

○ 유럽연구위원회(ERC)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증가(9.2)

- EU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면서 유럽연구위원회(ERC)의 Advanced Grants에 대한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(EU 외 지역 연구자들의 지원 신청이 약 4배 가까이 증가, 총 제안서 수 전년도 대비 31%, '23년 대비 82% 증가)
- 이러한 수치는 EU가 5억 유로 규모의 ‘Choose Europe’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인재 유치를 추진한 결과

○ HE 클러스터 5·6 '26~'27 워크프로그램 업데이트 ... 예산 삭감 내용 포함(9.1)

-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 5, 6 2026~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었으며, 클러스터5(기후·에너지·모빌리티) 공동연구에 대한 자금이 대폭 축소된 내용이 포함(총 지원금 약 1/3로 줄어듦). 다만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은 아니며, 약 5억 유로는 호라이즌 유럽 미션, 1억 5,000만 유로는 대규모 친환경 기술 실증 프로젝트로 이전

- (기타) ▲연구 제안서 평가에 AI 활용 ... 평가자의 업무 경감하지만 효과 제한적 (9.2) ▲노벨상 수상자 “EU 연구 지원, 혁신에 집중해야”(8.28) ▲유럽의회조사처 (EPRS), 폰데어라이엔 위원회 2기 정책 우선순위 및 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(9.1)